

I. 서론

I. 서론

성매매 관련 10대 청소년들이 종암 경찰서 서장으로 김 강자 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크게 부각되었다. 아직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보호받아야만 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이 미아리 텍사스촌을 이끌어 가는 주 매매춘 여성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성매매 관련 업소에 종사하는 여자 청소년 외에 단란주점, 퇴폐노래방, 티켓다방에서 음성적으로 종사하는 여자 청소년 수를 또한 따진다면 그 수가 50만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사회, 2000년 봄 창간호, p. 46) 게다가 최근에 최신 첨단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교제 대상 청소년을 포함한다면 성매매에 관련하고 있는 청소년 숫자는 엄청나다. 김 강자 서장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십대 청소년들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단속을 통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십대 청소년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 일간신문에서 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으로 미성년자 율락행위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응답자 중 단지 4%에 불과하다. 반면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응답자 중 41%에 달한다. (조선일보, 2000년 1월 17일자)

실제로 대대적인 단속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율락업소,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십대 여자 청소년들은 경찰의 단

속을 피해 잠시 잠적해 있거나, 주택가에서 음성적인 매춘 행위를 하거나, 전화방이나 인터넷을 통해 하는 원조교제로 이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성매매 청소년 집단은 커다란 고무 풍선과 같아 한 쪽을 누를 경우 다른 한 쪽은 뻐죽 튀어나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한 쪽의 단속이 심해질 경우 그 자체가 사라지거나, 줄어들기보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옮겨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에 관련하고 있는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은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매매 관련 10대 청소년 문제는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한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연 성매매 관련 청소년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목적으로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 산업 유입과정과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부분은 새로운 접근으로 통해 성매매 청소년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본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성매매 청소년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보려고 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게 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성매매 산업 유입 후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과 그들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넷째,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그리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매매 청소년문제의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

에서는 첫째,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 둘째, 지금까지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 대책들에게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도 아울러 알아보려고 한다. 셋째, 새로운 접근 방식에 토대한 성매매 청소년 해결 방안의 모델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매매 청소년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초자료로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청소년들의 경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성매매 청소년들을 직접 면담하여 그들의 경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문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성매매 청소년과 관련하여 방영된 TV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활용하였다. 아울러 성매매 청소년 관련 연구가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서 보충 자료로서 인터넷 상에 오른 성매매 청소년 자료를 또한 사용하였다. 최근의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 산업 유입과정과 실태

1. 성매매 청소년의 정의
2.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 산업
유입과정
3. 성매매 산업 유입 후 성매매
청소년의 실태
4. 성매매가 끼치는 영향

II.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 산업 유입 과정과 실태

1. 성매매 청소년의 정의

성매매 청소년이란 자신의 성을 팔고 그 대가로 돈 혹은 금품을 받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성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이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윤락행위, 매춘행위라고 보고 윤락행위 혹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을 윤락여성 혹은 매춘 여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윤락이나 매춘이라는 용어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진다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윤리의 타락을 강조하고 반면 성을 사는 남성의 존재를 은폐시켜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다하여 가능한 한 그것들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김은실외, 1999, p. 1)

이런 이유로 가능한 한 윤락이나 매춘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나타내는 용어이면서 또한 한 쪽 성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용어인 성매매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런 취지에 따라 윤락이나 매춘대신에 성매매라는 사용하려고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매매 청소년이란 어떤 이유에서건 성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이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성매매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에서 변화순과 황정임은 성매

매를 크게 전통형 매매촌과 산업형 매매촌으로 나누고 있다. (변화순·황정임, 1998, pp. 49-58) 전통형 매매촌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촌만을 하는 형태로 1960-70년대 가장 성행하였고, 지금도 특정지역에 집촌화되어 있는 소위 ‘윤락가’로 불리는 용산, 청량리 588, 천호동, 미아리, 영등포, 용주골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의미한다. 전통형 매매촌 업소의 수와 종사자는 1998년 현재 48개 특정지역에 5,128명과 10개의 기지촌에 758명의 여성이 있다.”¹⁾

이에 반해 산업형 매매촌은 본래의 1차적 목적이 성매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부수적인 서비스로 매매촌 행위를 하거나 매매촌 행위를 알선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를 정점으로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다. 크게 산업형 매매촌은 단란주점, 룸살롱, 요정,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유흥주점, 다방 등 식품접객업소와 호텔, 여인숙, 여관, 증기탕,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위생접객업소로 나누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1997년 현재, 584,388개에 달하고 위생접객업소의 현황을 보면, 1998년 현재, 숙박업이 31,429개, 목욕장업이 9,874개, 그리고 이용업이 30,534개 총 71,837개에 달한다. 특히 이중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용되어 성매매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진 업소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그리고 다방이다. (심영희외, 1999, p. 29)²⁾

1)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매매촌을 담당하는 업소를 편의상 윤락업소로 지칭하려고 한다.

2) 이 연구에서는 산업형 매매촌을 담당하는 업소를 편의상 유흥업소로 지

이런 전통형 매매춘이나 산업형 매매춘 이외에도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로는 지정된 장소나 업소가 아닌 전화방, 폰팅, PC방, 인터넷 채팅방에서 첨단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 팔 사람이 개별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원조교제가 있다. 원조교제는 전통적 매매춘이나 산업형 매매춘에 비해 가장 최근에 생긴 성매매 유형이지만 첨단통신 기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십대 청소년이 관심을 갖는 성매매 유형으로, 또한 은밀하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성인 남성 역시 선호하는 성매매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실제적으로 몇 명의 십대 여자 청소년이 전통형 매매춘이나 산업형 매매춘, 그리고 원조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는 알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매매에 관련하는 십대 청소년들은 어느 한 형태의 단속이 심해지면 성매매 행위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의 성매매 산업으로 자리를 옮길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 십대 청소년이 거의 모든 형태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그것도 상당수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98년 12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성매매에 관련하였다가 잡힌 청소년의 수는 3517명에 달한다. 이 중 단란주점에서 일하다가 잡힌 청소년은 전체의 32%로 가장 높았고 보도방 (16%), 유흥주점(11%), 티켓다방(10%) 등의 순이었다. (대검찰청, 1999) 이외에도 원조교제에 관련하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 숫자는 없지만 “같은 반 친구 50여명 중 20여명은 원조교제를 한다.” (한겨

침하려고 한다.

레신문, 2000년 2월12일자) 혹은 “반에서 몇 몇 빼고는 모두 다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 “동급생의 80%는 원조교제의 경험이 있다.” (여성중앙, 2000년 2월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청소년이 현재 원조교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방법과 소년계는 올 상반기 중 원조교제 소녀 20명과 남자 60명을 적발했다. (국민일보, 7월 18일자) 과연 몇 명의 청소년이 원조교제를 하고 있는 지 전국적 통계가 나오지 않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원조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가 가히 천문학적에 달하고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50만 혹은 그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추측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들 청소년의 나이를 보면, 나이가 적게는 12세부터 성매매 행위를 시작한다. 대검찰청 (1999)이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백서」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 사이에 단속 대상이 되었던 청소년 중 많지는 않지만 12세 13세 여자 청소년도 있었다. 1998년 12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는 12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13세 여자 청소년은 발견되었다. 가장 많이 분포된 연령층은 17세, 18세 청소년으로 97년에는 50.1%, 98년에는 55.1%를 차지하고 있다. (심영희 외, 1999, p. 29)

서울 경찰청이 발표한 “2000년 원조교제 사범 현황”에 의하면, 여전히 17세 여자 청소년이 3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18세 (25.9%), 15세(13.8%), 16세(10.3%) 순이었으며 14세 이하도 16.1%였다. (국민일보, 2000년 3월 31일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여자 청소년이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매매에 참여하는 것일까? 과거처럼 배가 고파, 가난을 벗어

나기 위해, 혹은 굶어 죽어 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도 아닐텐데 왜 스스로 몸을 파는 것일까? 순결을 목숨만큼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 한국에서 나이로 보아서는 한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꿈꾸어야하는 나이인 어린 여자 청소년들이 왜 미래를 담보로 하고 정말 몇 푼의 돈을 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성을 파는 것일까? 문제는 이들이 몇 몇 인신매매자에 의해 잡혀와서 할 수 없이 성매매에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서 지적되듯이 자신의 말로 걸어 들어와 혹은 자신이 원해서 성매매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럼 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성매매 산업 참여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는 것일까? 다음에는 이 질문들에 답을 한 번 찾아보려고 한다.

2.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 산업 유입과정

물론 성매매 산업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여자 청소년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실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는 많은 여자 청소년이 처음부터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의 대부분은 가출 청소년으로 가출과 가정복귀, 그리고 재가출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할 수 없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다. 물론 원조교제의 경우 학생의 신분을 지키면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조교제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들도 다른 유형의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과 마

찬가지로 결국은 가출을 하게 되고 계속 원조교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유형의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된다.

대략 윤락업소·유흥업소에 참여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 산업 유입과정은 가출⇒방황⇒(가정복귀⇒재가출⇒취업노력⇒실패⇒성매매 산업 유입이고 원조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의 유입과정은 첨단 통신 기기 혹은 친구 소개⇒원조교제⇒가출⇒(원조교제⇒방황⇒)다른 성매매 산업 유입이다.

1) 가출 단계

학자들은 청소년이 가출하는 동기에 따라 그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Homer(1973)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을 탈출형(running from)과 추구형(running to)으로 나누고 있다. “탈출형” 가출은 문제로부터 달아나기 위한 가출이며, “추구형” 가출은 즐거움과 향락을 찾아 가출하는 것이다. (이민희, 1998, p.10) 한국여성개발원 연구(1997)에서는 추구형, 탈출형,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추방형 가출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 (김성경, 1997, p.12) 여기서 추방형 가출이란 가정에서 버림을 당해 쫓겨난 청소년을 말한다. 본 연구자는 가출을 크게 단순가출, 그리고 문제성 가출로 나누고 싶다. 여기서 단순가출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싶어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문제성 가출은 청소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가출이다. 일반적으로 단순가출은 일시적 가출로 끝나기 싶지만 문제성 가출은 문제가 계속 잔존하는 한 가정 복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가출이

된다.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여 청소년은 이런 문제성 가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러면 문제성 가출은 왜 발생하는가?

첫 번째, 가정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청소년들이 가출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이혼, 별거, 부모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이들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안정이나 행복을 제공해주는 곳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래 전에 불안과 불행을 제공해주는 곳이 되어 버렸다. 많은 경우 이들은 가난과 폭력에 시달려왔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으로부터의 성폭력은 이들의 삶을 굴욕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가정 문제는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보고 공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예를 들면 친부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경우 그 청소년은 스스로 고소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법정 대리인일 경우 (아버지 또는 시설 내 아동의 경우는 시설장)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를 인지한 제 3자가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특히 아버지 등 직계 존속인 경우 어머니가 대리 고소해야 하는 데 어머니가 가정을 파괴하기 원하지 않을 때 혹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을 때 고소하지 못하고 단지 상황을 방관하게 된다. (이민희, 1998, p.31) 이처럼 성폭력을 포함하여 가정 폭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개인의 사적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가정 폭력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희생자인 청소년들의 안녕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이런 폭력을 당해도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라고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가정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적인 탈출, 즉 가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두 번째, 한국의 교육제도는 공부에 관심 없는 청소년을 문제아로 만들어 거리로 내쫓고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실기,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이들을 입시교육이라는 틀 안에 묶어놓고 이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차없이 문제학생으로 만들어 버린다. 일단 문제학생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 학생들은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교사들의 폭력 앞에 이들은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학생들이 된다. 이들에게 학교는 지겨운 곳, 폭력이 난무하는 곳,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 되어버린다. 이런 속에서 가정 문제와 겹쳐지게 되면, 혹은 친구의 유혹 등은 이들을 가출로 이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세 번째, 한국의 남성중심 문화는 여자 청소년의 가출을 부추기고 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가출 청소년의 성별을 볼 때 놀라운 것은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이 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6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96학년도 가출학생 총 숫자는 21,15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데 이중 남학생은 9,445명, 여학생은 11,711명이다. (김성경, 1997, p.41) 이는 언 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출은 청소년기의 반항의 상징처럼 보여왔고 그런 의미에서 남자 청소년이 더 많이 가출할 것 같지만 흥미롭게도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이 가출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아직도 가정에서 여자 청소년의 위치가, 즉 십대의 딸의 위치가 여러 면에서 불리하고 억압적이라는데 있다. 여자 청소년이 가출하게 되는 이유로 그들은 할머니(부모의 이혼으로 조모와 살 경우)의 남자 형제와의 차별적 대우, 부의 (성)폭력, 친척의 성폭력, 엄마가 가출시 집안일 등 그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차별, 억압 등을 들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쉽게 성폭력의 희생자가 될 뿐 아니라 연령하고는 상관없이 남성-아버지 혹은 남자 형제-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는다. 엄마가 가정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갔을 때 가사 일을 도맡게 되고 엄마를 대신 하여 폭력을 당하게 된다. 이처럼 가정 내에 존재하는 남성중심문화로 말미암아 여자 청소년은 차별 받고 억압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불만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네 번째, 극도의 소비문화, 물질만능위주의 문화는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이들의 강한 욕망은 한편 이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세계에 대한 동경과 연결된다. 이들에게 비친 밖의 세계는 화려하고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만 같은 세계이다. 멋있는 옷이 즐비하고 멋진 차들이 거리를 누비고 행복이 가득 찬 세계이다. 자연 이들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화려하고 멋있는 외부 세계와 비교할 때 더욱 더 불행해지게 된다. 외부 세계에서 사는 같은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비싼 옷에, 비싼 운동화를 사 신고 있고 또 비싼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서부터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행해지고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에서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외부세계로 가고 싶어한다.

이처럼 이들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불행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혹은 멋있는 세계로 나아가서 한 번 멋있게 살아보기 위해 가출을 결정하고 집을 나오게 된다. 그러나 집을 나온 이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었던 만큼 그렇게 화려하지도 멋있지도 않다. 실제 이들은 곧 이들이 그렇게 꿈꾸어 왔던 밖의 세계가 이들이 그렇게 뛰쳐나오고 싶었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들은 곧 성격은 다르지만 또 다른 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2) 방황 단계

일단 가출을 한 후 이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처음 며칠동안은 친구 집이나 길거리, 여관 등에서 보낸다. 그러나 가출이 장기화될 경우 점차적으로 머물 곳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 또한 가출 당시 갖고 나온 돈이 떨어짐에 따라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이들은 막막한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가출 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 바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정책이시다. (김성경, 1997, p.3) 비록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를 들면 성폭력 등을 벗어나기 위한 가출의 경우도 따로 마련된 대책은 없다. 이들이 일정기간 머물 수 있는 시설도 제대

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공공 기관 및 정부 위탁 기관 주도의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중장기 보호시설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실제 전국 5개소의 일시 보호기관이 있으며 중장기 보호시설은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와 같은 육아시설을 이용한 시설뿐이다. (김성경, 1997, p. 49) 그리고 이들 시설조차 주로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음으로 중·소도시의 많은 가출 청소년들을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실적으로 이들 가출 청소년들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일자리 또한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의 종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IMF 이후 경기 침체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는 주로 공장과 같은 제조업에서의 단순직, 세차장, 주유소, 레스토랑, 카페 등의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직 등이다. (김성경, 1997, p. 70) 그러나 그런 일자리조차 많은 경우 불법적이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제 63조에 따르면 청소년들 중 15세 이상인 자만을 고용될 수 있으면,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민희, 1998, p. 32) 이처럼 고용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이들 가출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가출해서 불법으로밖에 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너처럼 학교도 그만두고 가출한 녀석을 받아줄 회사가 있을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은 무시당한다. (대한매일, 2000년 10월 16일자) 또한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공장 등

에서 일할 때 3-4시간 야근은 기본이다. 그러나 문제는 야간 작업을 하더라도 야당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일을 시키고도 가출 청소년이라는 약점을 잡아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만들어진 법조차 결국 이들이 정당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그리고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

이와 같이 이들 청소년들은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구했을 경우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간다. 특히 사회에서는 이유와 상관없이 모든 가출은 나쁘다라는 통념 아래 이들이 가출청소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들을 문제아로 보거나 범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비행아로 취급한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출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의 복지는 논의의 대상이 된다.

3) 성매매 산업 유입단계

이처럼 상당수의 가출 청소년들은 최소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욕구조차 제대로 채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진다. 이럴 때 이들은 “주거지 제공, 고소득 보장”이라는 일자리 광고를 접하게 된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노동현장에서나 어리다고, 여자라고, 가출했다고 차별적인 대접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그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라는

것이 높은 상품가치로 인정되는 유흥업소-단란주점, 티켓다방, 호프집 등, 그리고 윤락업소에서 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내건 광고다. 실제 이런 유흥업소나 윤락업소에서 “영계”인 10대 여자 청소년들은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다.³⁾ 특히 IMF이후 주춤해진 경기를 회복하는 데 이들 업소 주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이용하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가능한 많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그들의 업소에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자연 10대 가출 여자청소년에게 유혹의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이미 오랜 가출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가출 여자 청소년은 결국 이들 업소 주인들이 내건 광고에 현혹되어 유흥업소 혹은 윤락업소에 유입되게 된다.

3. 성매매 산업 유입 후 청소년의 실태

1) 성매매 산업 유입 후 성매매 청소년이 겪게 되는 문제점들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십대 여자 청소년은 성매매 산업의 주 고객인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집단으로 얼마간은 가장 잘 나

3) 십대 여자 청소년을 좋아하는 이유로 남성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깨끗하고 신선해서(51.7%), 호기심때문에(21.3%), 더 젊어질 것 같아서(5.6%),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서(4.2%), 순진해서 말을 잘 들으니까(2.8%) 등이다. (김은실외, 1999, p. 15) “나한테 밥 해줄 여자도 아니고 또 와이셔츠 다려줄 여자도 아니고, 내 인간적 고민을 들어줄 대상도 아니고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좋아해요, 100이면 90은 다 좋아할 거예요.” “경험이 적은 여자가 좋으니까요. 살이 탄력적인 면도 있겠고...일종의 정복욕이라고 할 수 있죠.” (김지혜, 1999, p.16)

가는 매매춘 여성이 된다. 십대 특성도 작용해서인지 이들은 자신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진다. 또한 지금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당했지만 성매매 산업에는 바로 어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익을 본다는데 만족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환상도 잠시 이들은 다른 매매춘 여성이 겪는 문제들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우선 이들은 손님으로부터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접을 감당해야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을 감수해야한다. 손님들에게 이들이 어리다는 점은 지나친 요구를 삼가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손님에게 이들은 단지 나이가 어린, 그렇게 때문에 신선하고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는 또 다른 매매춘 여성에 불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너만한 나이의 딸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이 손님들의 행동을 절제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효희, 1998, p. 64) 유흥업소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한 여자 청소년의 말을 빌리자면, “손님들이 이런 데서 일하는 애들이라구 막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 막 욕하고... 씨발날이라고도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옷 벗어봐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만지거나 그러면 저는 울면서 나오거든요.” (이효희, 1998, p.60) 성인 남성들은 이들에게 또한 많은 변태행위를 요구한다. 원조교제의 경우 성인남성은 빈번히 1:2 혹은 2:2 등의 혼음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일단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개인적이면서 소극적 저항을 할 뿐이다. 소극적 저항의 예로는 손님과의 관계에서 몸과 마음을 분리시킨다. “섹스할 때는 다른 사람이랑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끝내라 그런 생각도 하구. 아저씨하고 한다구 생각 안하고 경훈이, 한석이 그런 애들하고 한다고 생각해요...” (이호희, 1998, p. 55) 혹은 손님을 돈으로 동일시하기도 한다. “싫죠. 그렇지만 잠깐 눈감고 있으면 20만원을 벌 수 있다 생각에 참아요.” (김 은실, 1999, p. 69) 혹은 남성 손님을 인간으로 보기를 거부하면서 그들을 세는 단위를 개로 쓰기도 한다. 이번 군산매매춘 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죽은 한 매매춘 여성의 수첩에는 ‘8월 11일. 6개(받은 손님 수). 매상 총 24만원. 내꺼 12만원.’로 쓰여있다. (우먼센스, 2000년 11월호, p. 510)

두 번째, 여자 청소년들은 돈을 벌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빚에 묶이게 된다. 이들의 시작은 처음부터 빚을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출하여 무일푼인 이들은 살 곳 마련, 먹을 것 마련 등으로 인해 돈을 업주로부터 끌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을 하게 되면서 옷이며 화장품 등이 필요하게 된다. 업주들은 기꺼이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십대 여자 청소년들은 고마워한다. 빚이 후에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지도 모른 채 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대 여자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최소한 몇 백 만원의 빚을 지고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다.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십대 여자 청소년들이 버는 돈은 적지 않다. 원조교제의 경우 한 번에 최소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벌게 된다. 윤락업소의 경우 일인당 화대는 약 6만원 가량이고 업주와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으므로, 한 명당 3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된다. 최소한 3

명 내지 4명의 손님을 받았을 때 하루 평균 10만원 정도 벌게 된다. 유흥업소 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단란 주점의 경우 월급과 테이블 수당을 따로 받기도 하고, 테이블 수당만을 받기도 하는데 월 때 혹은 손님이 많지 않을 때를 고려하면 한 달에 약 150만원 정도 번다. (이 효희, 1998, p. 90)

그러나 실제 이들 청소년들은 번 돈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경우는 드물다. 성매매 산업 구조상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이 무계획적으로 돈을 쓴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한 번 멋지게 돈을 벌어 멋지게 쓰고 싶은 충동을 가진다. 또한 한 번도 많은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쓰고 보자는 심리도 생긴다. 그리고 이들에 기생하여 사는 많은 사람들-성매매 산업의 포주 혹은 업주, 펌푸, 웨이터, 주변 시장, 목욕탕, 옷가게, 화장품 가게, 세탁소, 약국,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이런 소비 심리를 부추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버는 대로 쓰거나 버는 것보다 더 쓰게 된다. 처음 진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또 빚을 지게 된다. 이들은 주로 일수를 찍는데 일수 이자가 100일 쓰는데 100만원 당 20만원이나 된다. (원미혜, 1997, p. 43)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돈을 벌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성매매 산업에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들의 빚은 늘어만 간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것은 군산 화재 사건으로 숨진 매매춘 여성의 경우 매매춘 여성의 나이에 따라 빚이 더 많았다. 25세인 권모양은 2천 9백만원, 23세인 최모양은 1천 8백만원, 20세인 김모양은 1천 1백만 원이다. (우먼센스, 2000년 11월호, p. 511) 물론 빚을 지는 데는 나이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겠지만 일반

적으로 나이 즉 성매매 산업에 머문 년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이자와 더불어 이들을 빚을 지게 하는 다른 이유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터무니없는 벌금제도이다. 티켓다방의 경우 여성과 다방 업주는 보통 한 달 단위(30일 기준 그리고 오전 8시-오후 11시)로 계약을 맺는 데 일이 너무 힘들어 혹은 사정상 쉬게 될 경우 업주는 이들에게 티켓을 끊게 한다. 결국 이들은 하루 결근할 경우 15-2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티켓 다방의 경우 월급이 10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인데 티켓을 몇 번만 끊게 되면 월급의 반 이상을 벌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원미혜, 1997, p. 42) 이런 과도한 벌금은 다른 업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은 가능한 한 쉬 수 없고 쉬려고 하지도 않는다. 군산의 임양의 경우 병원에 다니면서도 손님을 받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세 번째, 이들은 항상 폭력에 노출된다. 일반적으로 업주나 포주, 성매매 알선 업자 대부분은 폭력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폭력조직은 이들이 성매매 산업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성매매 산업으로부터 도망을 치려할 때마다 폭력으로 이들의 행동을 저지한다. 고아원에서 나와 미아리에서 매매춘 여성으로 일하게 된 지민의 경우, 말썽이 생길 때마다 엄마라고 불리는 포주와 삼촌이라 불리는 남자에게 허리띠로 맞았다. (유태희, 1999, p. 73). 십대 청소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성매매 현실에 불만을 품고 이곳을 도망하려 할 경우는 더욱 심각한 폭력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이들에게 성매매 산업으로부터의 탈출은 집으로부

터의 탈출과는 다르다. 만약 이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업주나 포주에 의해 고용된 폭력조직에 엄청난 폭력을 당하게 된다. “아가씨들이 도망 못 처요. 도망쳐도 일주일이면 잡혀요. 업소에서 돈 받고 일주일이면 찾는다니까요. 다 조직이 있어요. 잡으러 간 애들한테 맞아 죽는 거죠. 완전히 떡되도록 맞아요.” (김은실, 1999, p. 42) 또 한 성매매 청소년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 두겠다”고 하자 폭력조직배가 동원되어 이 청소년을 방안으로 몰아넣고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들이 흩어진 방바닥 위를 발가벗고 구르라고 시켰다. (조선일보, 2000년 1월 13일자) 그리고 심할 경우 이들은 거의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면 군산 매매춘 여성의 경우에서처럼 평상시 쇠창살과 철문으로 감금해 놓고 매춘 행위를 시키거나 목욕탕을 갈 때도 포주나 포주 가족이 따라 나설 정도의 심한 감시를 당한다. (우먼센스, 2000년 11월호, pp. 511-512)

이런 문제점들에 노출되지만 그래도 성매매 산업 유입 초기만해도 이들은 아직 십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2) 성매매 산업 유입 초기의 성매매 청소년의 특징

첫 번째, 이들은 아직 미래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갖고 있다. 이들은 처음 광고를 보았을 때 ‘고소득’ 보장이라는 문구에 현혹된다. 그래 돈을 벌 욕심으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게 되면 돈을 번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인들의 경우에서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친구 혹은 다른 성매매 관련 여성들의 경우를 통해서 돈을 모으기보다는 차라리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게 되면 어떠한 사회적 대접, 시선을 받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한다.

두 번째, 이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한편으로 그렇게 지겨워 하던 학교생활을 그리워한다. 이들이 이런 생활에 접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이나 보호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필요한 사랑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다른 누구에겐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대신 받고 싶어한다. 그레 엄주나 포주와의 관계에서도 보았듯이 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착취하기 위해 혹은 통제하기 위해 배푸는 거짓 사랑에도 쉽게 속아넘어 간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지겨워 하던 학교도 차츰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실제 더 이상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은 교복을 입은 학생에 대한 부러움으로 바뀐다.

세 번째, 성에 그리고 이성애 아직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관심 갖는 남성은 이들이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면서 만나는 성인 남성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 갖는 성도 이들 성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성이 아니다. 이들에게 성인 남성은 성적 욕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지겨운 존재이다. 이상한 행위를 요구하고 자신들을 못살게 구는 사

람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성인 남성은 돈이며 돈을 벌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또래의 남자이다. 그리고 성인 남성과의 성매매를 통해 벌은 돈으로 또래의 남성과 실컷 놀고 싶어한다.

네 번째, 이들은 과소비적인 성향을 보인다. 광고처럼 실제 이들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도 이들은 항상 빚에 쫓돌리게 된다. 물론 성매매 산업 구조상 이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들이 빚에 쫓돌리는 또 다른 이유는 비싼 물건을 사는데 혹은 자신의 유흥비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데 있다. 한 번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아무에게도 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써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이들은 돈 쓰는 맛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게 되고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들은 비록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지만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친구나 다른 여성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대로, 그리고 율락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청소년은 그들대로 자신들은 다른 업소의 여성과는 다르다 (여기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다름) 혹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의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들은 2차에 나가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데 그리고 율락업소의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들은 최소한 돈을 벌기 위해 술을 먹지는 않는다는데 있어 다른 업소의 여자 청소년들과는 다르다 혹은 더 낫다고 생각한

다.

여섯 번째,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다. 그리고 임신은 운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이차까지 갔다올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후까지 잠자고 다시 늦으막하게 일 나가고 다시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보면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젊은이들은 (혹은 어린 이들은) 이런 생활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혹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성병에 그리고 AIDS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성관계를 맺게 되면 임신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임신에 대처한다. 예를 들면 상대하는 남성들의 대부분이 40대이니깐 이미 정관수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효희, 1998, p. 93)

4. 성매매가 끼치는 영향

1)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위에서 보았듯이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은 초기에는 아직도 십대적인 특성을 간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매매 산업 구조는 이들이 십대적 특성을 간직할 수 없게 한다. 힘든 현실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이들 십대 청소년들은 점

차적으로 성인 매매춘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적, 고립적, 무기력해진다. 이처럼 성매매는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머물게 되는 청소년에게서 꿈과 미래를 빼앗고 대신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상처만을 안겨준다.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과연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성매매는 십대 청소년에게 남아있던 작은 자아존중감마저 빼앗는다. 성은 인간에게 가장 사적이면서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다. 특히 여성의 성은 문화적으로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닐 경우 여성들은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많은 성폭력의 경우에서처럼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맺어지면 여성은 자신의 몸은 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게 된다. 비록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돈이 필요해서 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들이 원하여서 맺은 성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이들에게 항상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싶어한다. 원조교제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이들은 자신들은 성을 파는 매매춘 여성은 아니라는, 그리고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싶어한다. 그래 엄연히 매매춘 행위를 하면서도 원조교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매매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기 부정에 빠지게 된다. 결국 이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존중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자존감 저하 혹은 자신감 상실은 성매매 산업에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심해진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있는 한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는 치욕적인 변태 행위를 자주 요구받

게 되고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되면서 최소한 갖고 있던 자존감마저 잃게 된다.

두 번째, 성매매는 청소년들을 점차적으로 사회로부터, 또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고립된 존재로 만든다. 십대 청소년은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점차 사람을 기피하게 된다. 같은 처지에 있는 몇몇 친구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 가정에서 머물면서 하는 원조교제의 경우조차도 다른 가족 성원과의 관계는 단지 형식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출을 해서 성 산업에 유입된 경우 더욱 심하다. 이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과 최소한의 형식적인 관계조차 맺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유흥업소나 윤락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나 포주는 이들이 다른 매매춘 여성(청소년 포함)과 친해져 도망칠까를 두려워하여 가능한 한 다른 매매춘 여성과 분리시켜놓는다. 이와 같이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여자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부재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세 번째, 성매매는 청소년에게 허탈감만을 갖게 한다. 이들이 자신의 몸을 판 주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에게 남는 것은 없거나 혹은 빚뿐이라는 점이다. 성매매의 구조상 매매춘 여성(청소년 포함)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원조교제의 경우 청소년들은 많은 돈을 성인 남성에게 받는다. 그러나 곧 이들은 돈이 떨어져 다시 원조교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이들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원조교제의 악순환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유흥업소나 윤락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더욱 심하다.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

주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에게 빛을 지운다. 결국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돈을 벌기보다는 빛이 들어가는 구조에 놓이게 되면서 이들은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성매매 산업 초기에 가졌던 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은 단지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된다.

이들의 허탈감은 건강의 손실로부터 오기도 한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아직 어린이들은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는가에 대한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특히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이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늦게까지 손님을 받아야 함으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유흥업소의 경우 이들은 또한 항상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그것이 끝나고 이차를 가게 됨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빈번한 성관계로 인해 항상 성병과 임신의 위협성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실제 임신을 하고 낙태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이들은 만약 건강을 돌보기 위해 쉬게 되면 다 빛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필요한 만큼의 휴식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손님을 받게 된다. 결국 이들은 돈도 못 벌고 건강도 잃게 되면서 허탈감이라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네 번째, 결국에 삶에 대해 자포자기하게 된다. 처음에 가졌던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짐과 더불어 이들에게 남는 것은 빛과 잃어버린 건강, 그리고 사회적 낙인뿐이다. 매매춘 여성이라는 낙인은 이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 산업으로부터 탈출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매매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도 결혼하여 순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혼을 당하거나

불행한 결혼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매매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록 어렸을 때 철모르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도, 그들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 혹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산업에서 나오더라도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는 한 자신들이 한 행위를 숨기려고 전전긍긍해 하면서 살아가야 하거나 아니면 사회의 한 구석에서 과거의 “죄” 때문에 암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결국 이들은 주어진 선택이란 계속 성매매 산업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게 된다.

2)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성매매는 성매매 대상자인 여자 청소년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허용하고 있는 사회에도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물론 미성년자만이 관련한 성매매만을 따로 떼 놓고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에서 보호받을 청소년을 성매매 산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성인만의 성매매를 허용했을 때 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사회에 끼치게 된다. 성매매 특히 여자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는 성매매는 첫 번째로 여성의 (성) 상품화, 여성의 비하 문화를 강화시키게 된다.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남성우월주의가 아주 강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남성우월주의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몸을, 성을 파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

고 여성이 남성의 성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돈을 받고 성매매에 참여하는 것은 거꾸로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한층 강화시켜준다. 남성에게 있어 여성의 성이나 몸은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미성년의 성도 돈만 지불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남성에게 여성의 성과 몸은 마음만 먹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불과하게 된다. 최소한 과거에는 정숙한 여성, 타락한 여성이라는 이중 잣대로 여성을 구분하여 타락한 여성만이 상품으로 여겨졌지만 어린 여성까지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실제 그런 이중 잣대는 무너지게 되고 모든 여성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여성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많은 성인 남성들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어린 여자 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매우 이기적, 폭력적으로 만든다. 즉 사회가 조화롭게 움직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원칙, 그 중 하나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사회에서 힘이 없는 약자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힘이 있는 성인 남성이 힘이 없는 여자 청소년을 돈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돈을 주고 여자 청소년의 몸을, 성을 산다고 하지만 엄연히 성인 남성들은 이들 여자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보호받을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저지른 폭

력은 다시 폭력으로 사회에 돌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른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도 얻어야 하고 얻지 못할 경우는 폭력을 써서라도 얻으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얼마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다. 인천 중부 경찰서는 지난 7월 30일 원조교제를 한 20대 남자가 돈을 주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임포양을 구속하였다. (경향신문, 2000년 7월 31일자) 이 청소년은 원조교제 대상이 돈을 주지 않자 상대방 남자를 자고 있는 동안 목 졸라 죽였다. 결국 사회에서 보호받고 그 보호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키워나갈 여자 청소년을 성매매 산업에 내몰게 되면서 이 사회는 더 이상 청소년에게 그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 사용도 괜찮다는 것을 청소년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다.

세 번째, 성매매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성인들이 이기적이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게 될 경우, 청소년들이 돈을 위해 자신의 몸도, 성도 쉽게 팔 경우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할 수 없다. 특히 성매매에 참여하는 여자 청소년이 한 둘이 아니고 그 숫자가 엄청난 상황에서 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간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청소년 사회가, 청소년 문화가 황폐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가, 한국 문화가 폐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은 미래의 꿈을 잃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방치하였을 경우 한국 사회도 결국 십대 여자 청소년들과 같은 운명에

쳐하게 된다. 이처럼 성매매에 참여한 여자 청소년을 성매매 산업으로부터 탈출시키고, 다시 미래와 꿈을 되찾게 해주는 것은 단지 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한국사회를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들은 위한 정책이나 대안이 충분하지 못하다. 청소년들은 성산업에 유입되기 전에도 그리고 성산업에 유입된 후에도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군산 매매출업소 화재로 죽은 임양의 일기에도 이렇게 적혀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그것이 알고 싶다. 2000년 11월 4일, “여성의 인권”편) 그러나 임양이 기다리던 도움은 끝내 오지 않았다. 결국 18세때 가출한 임양은 20세 나이로 쇠창살에 갇혀 불길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제2의, 제3의 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원하는 도움을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도움이 제대로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올바른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산업에 유입하는 전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지 그리고 그 도움들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사회는, 성인들은 왜 청소년들의 간절한 도움 요청을 듣지 못했는지 혹은 외면했는지에 원인을 분석해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 요청이 들리게 하는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지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현재 이들 성매매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 제도, 서비스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왜 이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 했을 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어떤 도움이며, 어떤 단계에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Ⅲ. 새로운 접근에서 본 성매매 청소년문제 해결방안

1. 성매매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2. 성매매 청소년문제에 대한 기존의
해결방안과 평가

III. 새로운 접근에서 본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

1.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1) 성인중심, 남성중심, 그리고 물질중심 구조에서 청소년중심, 남녀평등지향적, 물질지양적 구조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위에서도 보았듯이 여자 청소년이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들이 문제아라서, 비행 청소년이라서 혹은 성적으로 문란한 청소년이라서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가 모두 손을 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었다. 최소한 사회나 성인 어른들이 왜 이들이 가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안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였더라면, 이들은 지금 가정에서, 학교에서 착한 딸로, 학교에서는 성실한 학생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가출 후 경우라도 사회나 성인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었더라면 이들은 약간의 방황을 거쳐 다시 가정에 복귀했을 것이다. 혹은 가정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지

지를 제공하거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혹은 직장을 얻는데 필요한 기술교육을 제공하였더라면 성실한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거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왜 필요한 도움이 청소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그 이유를 우선 한국 사회의 성인 중심의 구조, 남성 중심의 구조, 그리고 물질 중심의 구조에서 찾으려고 한다.

한국 사회는 철저한 성인 중심의 구조이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전형적인 소외계층이다. 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성인 어른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애초부터 청소년의 자립성, 독립성을 키우는 교육은 무시되었다.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은 이유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어른 말에 복종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일찍부터 가르쳐 주어야 하는 데 청소년들이 듣는 말은 “어린애가 뭘 참견이냐,” “그런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라”이다. 청소년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정에는, 학교에는, 사회에는 처음부터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존재할 공간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비행, 일탈로 여기고 그것들로부터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은 바로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청소년 문제에서 빠지고 싶어한다. 그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기 싫어한다. 성인들은 자신들이 청소년문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성매매 청소년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성인들은 성매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의 비행, 일탈, 성 문란, 성 왜곡 등에서 찾는다. 대부분의 성인은 성매매 청소년 문제에서 자신들은 무죄며 청소년이 바뀌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성인은 문제의 책임을 청소년에다 떠맡겨서는 안 된다. 물론 청소년의 책임이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먼저 성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성인들은 청소년의 가출 전, 가출 후, 그리고 성유입 초기와 후기 전 과정에 걸쳐 어떤 점에서 청소년 보호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분석과 반성을 하여야하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 지 고민해야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전히 청소년의 변화, 청소년의 교정을 통해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것을 바란다면 성매매 청소년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또 다른 구조는 남성중심의 구조이다. 남성의 중심의 구조에서 남성과 여성은 명확하게 차별된다. 여자 청소년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독립적인 객체로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착하고 소극적이고 여자답게 자랄 것을 요구받는다.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방법은 이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나 다른 성인 여성들은 삶의 주체로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자의 역할은 남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자의 존재는 남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남자는 어려서부

터 여자들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익숙하고 여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받아들인다. 성적인 욕구도 여기서 제외가 되지 않는다. 한국 문화에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억제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발산해도 된다고 배운다. 반면 여성들은 결혼 전까지 순결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여자들에게는 사회적 벌이 따른다. 남성에게는 정숙한 남성과 타락한 남성이 없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명확하게 정숙한 여성과 타락한 여성의 구분이 있다. 즉 정숙한 여성은 순결을 지키는 여성으로서 남성의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성들이다. 반면 타락한 여성은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성이지만 남성의 성적 자유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여성들이다. (변화순, 1998, p. 68)

타락한 여성의 대표적인 여성들은 바로 매매춘 여성들이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판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여성이다. 이들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로 인해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군산의 매매춘 여성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말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별로 내리는 모든 불이익을 그리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이 왜 매매춘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이들이 어떻게 인권유린을 당하는 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순결을 잃은 타락한 여성이라는 사실로부터,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과 성을 파는 여성이라는 사실로부터 이들이 받는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접, 사회적 무관심은 정당화되어 버린다.

매매춘 여성을 보는 시각은 성매매 청소년을 보는 시각, 혹은 성매매 청소년 문제를 보는 시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나 성인들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겁도 없이 자신의 성을, 몸을 자

발적으로 판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잘못만을 탓한다. 사회나 성인들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많은 성인 남성이 왜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지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저지르는 잘못에는 너무나 관대해왔다.

성매매 청소년 문제는 남성중심구조에서 잉태되었고 성장했다. 남녀불평등 구조가 어떻게 성매매 문제에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문제의 초점을 청소년의 성문란에, 성타락에 맞추기보다는 남성의 성문란에, 성타락에 맞추어져야 한다.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은 남성의 잘못에는 너그러우면 여성의 잘못에는 너무나 가혹한, 그리고 여성의 존재를 비독립적인 존재로 보면서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현재의 남녀불평등 구조를 탈피해야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청소년 문제를 가능하게 하고 지탱시켜주는 또 다른 구조는 바로 물질중심 구조 즉 자본주의 구조이다. 이 구조 속에서는 모든 것은 상품화되고 상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은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돈이 얼마나 많은 위력을 갖고 있는 지 배운다. 그리고 그 밖의 중요한 가치는 공부 때문에, 입시 때문에 시간이 없어 배울 수 없다. 혹은 더 이상 한국의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는 배금주의나 물질만능주의 외에 청소년에게 가르칠 다른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청소년들은 돈에 맹목적이 되고 그런 가치만을 중요시 여긴다. 이들은 욕구 충족의 유일한 수단으로 상품 구입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한다. 매스컴은 이들의 물신주

의를 한층 부추긴다. 매스컴은 비싼 옷, 비싼 구두, 최신의 핸드폰을 광고한다. 그리고 그 광고의 주 대상은 바로 청소년이다. 광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멋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싼 옷, 구두, 핸드폰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결국 이들은 멋있고 인정받기 위해 비싼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성매매 청소년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가르쳐준 대로 돈을 최고로 여겼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상품적 가치가 높은 성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혹은 일을 하였을 따름이다. 물질중심의 구조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 산업에 참여한 것은 바로 다른 상품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상품으로 내다판 것에 불과하다. 이런 극도의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바뀌지 않는 한 청소년들은 어떤 형태를 띤 성매매 산업에 계속 관여하게 될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은 청소년에게 물질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물질이나 돈보다 더 많은 다른 중요한 가치가 많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만 가능하다.

성인중심의 구조, 남성중심의 구조, 그리고 물질중심의 구조는 교묘히 혼합된 상태로 성매매 청소년이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유지·존속시켜오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매매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인 중심의, 남성 중심, 자본주의적 구조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매

매 여자 청소년들은 극도의 자본주의 구조에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또 한번 이런 해결방안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성매매 여자 청소년들은 지금도 여전히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매매 여자 청소년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인중심의, 남성중심의, 그리고 물질중심의 구조를 벗어나 좀 더 청소년 중심의, 남녀평등 지향적인, 그리고 지나친 물질주의를 지양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접근이 먼저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일시적이며,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접근에서 지속적이며, 단계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으로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성매매 산업 유입 청소년에만 국한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데 있다. 성매매 청소년문제는 다른 청소년문제와 그리고 매매춘 여성문제와 따로 떼어놓고 해결될 수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실제 성매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가출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초기의 원조교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들은 가출한 여자 청소년이다. 가출의 원인을 미리 방지하고 가출 후 바로 개입하였더라면 많은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출 원인에 따른 다양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무조건 가정 복귀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을 재가출 하게 만들고 결국 방황의 단계를 거쳐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게 한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컴터가 존재하였더라면,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 자리가 주어졌더라면, 그리고 지겨운 입시에 치증하는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배움터가 제공되었더라면 이들은 굳이 자신들의 몸과 성을 돈 몇 푼에 팔지 않았을 것이다. 컴터에 대해서, “나가고 싶을 때가 어떻게 있어요. 갈 곳이 없는데.” “이런 곳이 있어 유흥업소에 빠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민희, 1998, p. 190) 또한 성매매 청소년문제는 매매춘 여성의 문제와 맞물려있다. 이번 군산 매매춘 업소화재로 죽은 임양은 바로 18세때 가출한 여자 청소년이었다. 그리고 2년 지난 후인 20살 때 바로 노예 매매춘 여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매매춘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없는 한 그리고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성매매 산업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미래는 암담하기 그지없다. 즉 청소년들은 고립되고 소외된 상태에서, 폭력에, 인권유린에, 빚에, 약물중독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가출 문제와 매매춘 여성 문제가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더불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단속과 처벌에만 치우쳤다. 물론 성매매 산업 업주나 포주 그리고 중간매개자들을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해야한다.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 성을 구입하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문제 해결은 단지 단속, 처벌, 규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성매매 산업에서 빠져 나온 청소년들이 다시 성매매 산업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막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매매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 정신적 상처·육체적 손실을 치료해줄 수 있는 치료 서

비스, 성매매 청소년의 자연스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기술교육, 직업교육, 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이 사회에 무리 없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이들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어야 하고 다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한 순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픈 성매매 청소년을 감싸줄 수 있도록 사회가,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이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문제의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성매매 청소년문제 해결은 성구매자나 업주, 포주, 중간매개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치료, 교육과 복지서비스, 그리고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교육이 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때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중앙 정부차원에서 지방정부차원으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성매매 청소년문제는 대도시에서만이 아니라 중·소 도시에서도 심각하다. 어쩌면 더욱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여러 조치들은 대도시 중심에 국한되어 있다. 성매매 청소년문제에 대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지만 중·도시의 경우 거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업소와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훨씬 심한 중·소도시의 경우 업소 단속은 더욱 힘들며 더욱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경우도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청소년을 돕는 여러 서비스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의 경우 청소년쉼터도 아직 없고 또한 선도보호시설도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청주에 유흥업소, 유흥업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업소들이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성매매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해결의 중심이 중앙정부 혹은 대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 역시, 그리고 중·소도시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원조교제의 경우 부모조차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마 내 아이가? 라는 “믿음” 속에 성매매 청소년 문제는 그대로 방치된다. 학교의 교사 역시 설마 내 학생이? 라는 생각 속에 문제를 외면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내 아이는 괜찮은데...라며 또한 문제를 회피한다. 가정이, 학교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하여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풀어 가야만이 궁극적으로는 성매매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학생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지, 그리고 내 이웃의 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면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으로 쉽게 복귀할 것이며,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더라도 사회복귀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성인중심의, 남성중심의,

그리고 물질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고 좀 더 청소년중심의, 남녀 평등적이며 물질 지양적인 구조를 지향하면서 또한 가출 청소년 문제, 그리고 매매춘 여성 문제 등과의 연결 속에서 지속적이며, 다각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할 때만이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청소년문제라는 것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과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성매매 청소년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할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성매매 청소년문제에 대한 기존의 해결 방안과 평가

1) 분산된 행정부처와 통일되지 않은 성매매 청소년 정책

성매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고 있는 행정부처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법무부와 검찰청, 노동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여성특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심영희외, 1999, pp. 31-32) 이처럼 많은 행정부처가 성매매 청소년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자세히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일시보호, 상담, 직업교육 및 보도, 성병 검진 등은 사회복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과(계) 혹은 여성복지과(계)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

찰청과 법무부의 검찰청에서는 성매매 관련 업소 단속과 위법자를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노동부는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를, 문화관광부 관광국에서는 위락시설을 중심으로 한 통제 업무를 맡고 있다. 교육부 초·중등 교육실의 중등장학과는 10대 청소년의 가출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자 청소년 전반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불법고용, 유해업소 단속 등을 통하여 여자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 관련 여자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여러 행정부처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통일된 정책을 세우는 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부처도 성매매 청소년 문제로부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행정기구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성매매 청소년문제에 관할할 수밖에 없더라도 최소한 한 부처가 중심 부처로서 역할을 하면서 역할 분담, 조정, 그리고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법이 제정되었다. 윤락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1961년 제정되어 한차례 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보호법(제 4조 제2항의 조항)도 역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흥주점에

는 20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8, p. 85) 반면 단란주점은 아예 여성접객원을 두지 않게 되어있다. 청소년보호법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6조 제2항 제1호)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6조 제2항 제2호)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하고 있다. (제26조 제2항 제3호) 이처럼 이런 법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기세를 더해가자 이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극단의 조치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제 1조에 명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00년 1월에 제정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원조교제와 관련하여 이 법은 그전의 법과 달리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남녀로 규정하고 있다. (제 2조)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

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 법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한다. 그리고 동 법 제 20조 2항에 따르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청소년의 경우 윤락행위 방지 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를 물게 했으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들의 형사처벌을 일체 면제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①귀가 조치 ②보호관찰 ③병원 등 위탁 ④소년원 수감 ⑤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최소한 성매매 청소년문제에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성인들-성구매자나 성매매 산업 업주나 포주-에 있다고 봄으로써 성구매자와 업주의 처벌은 대폭 강화하고 대상 청소년에게는 처벌하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 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과연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느냐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도 엄연히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다. 이처럼 아무리 옳고 좋은 법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그 법은 별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누누이 보아왔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채 안되었다. 그러나 벌써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공개문제였다. 신상공개문제는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막상 지난 7월 1일 법률이 시행되고도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실제 시행령안보다 훨씬 축소되어 실시되고 있다. 즉 신상공개가 관보와 중앙청사 게시판에 1개월,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공개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와 여성계가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10월 3일 최종적으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원조교제 범죄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한겨레, 2000년 10월 4일자)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관보 등에만 게재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일보, 2000년 10월 13일자)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 불처벌주의에 대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11월 16일 성인 남성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로 Y양을 불구속 입건토록 경찰에 지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불처벌주의에 어긋나고 있다. (조선일보, 2000년 11월 17일자) 검찰은 앞으로 원조교제가 적발될 경우 여성 청소년도 상습적일 경우

선별 입건할 방침임을 밝혔다.

3) 형식적인 단속과 남성주의적 집행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는 김강자 서장이 종암 파출소 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크게 떠올랐다. 청소년의 성매매를 근절시켰다는 김강자 서장의 강한 의지로 인해 시작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단속은 표면적으로는 청소년 성매매 단절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런 단속이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특히 대도시를 벗어나서는 별로 커다란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중소도시 혹은 소도시의 경우 강한 단속의 의지 없이 하는 단속이라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단속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연 업주들은 단속 기간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윤락업소나 유흥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나 관할 구청 직원 등이 이들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성상납을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뇌물이나 성상납을 받은 경찰이나 관할 구청 직원은 단속 전에 미리 단속 나올 것을 업주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안 업주들은 미리 여자 청소년을 숨겨 놓음으로써 단속을 피하게 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도 여전히 신문에서 심심찮게 원조교제와 관련된 구속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이런 신문 기사들은 원조교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윤락업소나 유흥업소의 업주, 포주, 그리고 중간매개자의 구속에 관한 사건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더 이상 여자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율락업소와 유흥업소의 유착관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문제는 단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잡혀온 경우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전체 형사법 기각률 13.7%보다 훨씬 높은 50.8% (올 상반기 서울지검 집계)나 되고 있다. (국민일보, 2000년 7월 23일자) 또한 서울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조교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1명 중 31명이 기각된 반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전체 5993건 중 823건만이 기각되었다. (국민일보, 2000년 7월 21일자)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최근에 범죄로 규정된 원조교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제대로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아직 원조교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국민일보, 2000년 7월 21일자) 또한 경우에 따라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한번에 15만원-20만원을 주고 최모양(18, 고3)과 20 여차례 성관계를 가진 임모씨(42·변호사)에 대해 최양 부모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했고 최양이 21세라고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입건하였다. (국민일보, 2000년 7월 23일자) 성매매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 판사나 검찰도 아직도 많은 경우 ‘숨방망이 처벌’로 성매매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4)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선도보호시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청소년을 처벌하

기보다는 귀가처분, 사회봉사명령, 병원위탁처분, 선도보호시설 위탁 처분 등 단계적 선도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선도 가능성이 큰 일시적·충동적 일탈 청소년에 대해서는 ‘단순 귀가처분’을, 개선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은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내리기로 했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병원 위탁처분’을, 적극적인 교육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을 내린다. (한겨레, 2000년 3월 16일자) 그러나 문제는 이들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시킬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성매매를 하여 잡혀온 여자 청소년의 경우 딱히 갈 곳도, 보살펴 줄 사람도 없을 경우 보호 시설에 보내야 하는데 보호시설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내용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선도보호시설의 경우, 전국에 9곳 376명이 수용돼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이다. 지난해 (1999년) 보건복지부에서 10개 시설 (선도보호시설 9곳, 임시보호소 1곳)에 지원한 예산은 18억 8539만원, 실제 이 돈의 80% 이상이 시설유지 인건비 지급에 쓰이고 있다. 선도보호시설중의 한 곳인 ‘한국여성의 집’의 경우 원생 26명이 생활하는 데 1인당 재활교육비는 한 달에 2000원, 6개월 과정인 미용교육은 재료비만 1인당 100만원 정도 드는데 배정된 예산은 6만원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2000년 1월 14일자) 프로그램 내용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미용, 피부미용, 제빵, 컴퓨터, 봉제, 편물, 양재, 가계자수이다. 입소 대상의 경우,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거나, 환경(가출유혹접대부)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입소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문제 소지를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선

도보호시설운영현황, 1998년 6월 30일 현재)

또한 1995년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선도보호시설로 개칭되면서 직업보도에서 인성변화로 전환되었지만 이를 위한 인력이나 제정과 같은 제반 여건은 이루어지지 않아 인성교육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조현순, 2000, p. 14) 즉 현재의 선도보호시설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시설이 낙후되고 프로그램의 차별화나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도보호시설의 전신인 ‘부녀보도시설’이 많은 인권문제 등을 야기하고 결국 4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경기여자기술원 화재사건의 기억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성매매 청소년 사이에선 선도보호시설은 여전히 기피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단속에 걸려 잡힌 한 성매매 청소년은 “컴퓨터-미용기술 모두 머리 아프다. 보호시설에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0년 1월 14일자)

물론 시설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청소년도 있는 데 문제는 이들이 원하더라도 1년 이상을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갈 곳이 없고 기술이 없는 청소년들은 다시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게 된다.

이외에도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가 있다. 1998년 현재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64개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이나 공원, 터미널,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52개의 간이상담소가 있으며, 여기에 420명의 여성복지상담원이 배치되어있다. (심영희, 1999, p. 33) 이들의 상담 내용은 취업알선, 시설입소, 보호알선, 선도귀가, 교육 및 조언, 치료의뢰 등이나 문제는 이들 상담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적이지 못하고 일화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1366’ 여성상담전화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원하는 ‘1388’ 청소년긴급 상담 전화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전화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이다. “청소년쉼터에 전화해봤어요, 받지도 않던데요? 그 뭐지? 1588? 뭐 있던데.” (김 은실, 1999, p. 86) 한 곳의 전화 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또 다른 전화서비스에 대해 불신을 낳게 됨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재확인시켜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성매매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되는 대책들을 살펴보았다. 놀라운 점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문제에 대해 제공되는 현재의 대책들이 아주 미비하다는 점이다. 많은 행정부처가 관여하다보니 성매매 청소년 문제에 대한 통일적인 대책이 서 있지 못하다. 현재 제공되는 대책들 역시 대부분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단계를 밟으면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 산업에 대한 단속의 경우,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후처리도 맞물려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아직 판사나 검사는 성매매 청소년문제에 대해 별로 민감하지 않으며 성매매를 하다 걸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일단 입건은 되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을 사회복귀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이고 시설은 낙후되었다. 성매매 청소년문제에 대책의 이런 현실은 아마 이 문제가 바로 청소년의 문제,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몸과성을 팔고 있는 성매매 여자 청소년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아직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성인중심적,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가 우려도 해본다.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능하면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지금까지의 성인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인들의 책임을 우선 묻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법도 성매매 청소년과 관련된 다른 법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된다. 정말 성매매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방향전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청소년이 바뀌면, 청소년을 교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냉정하게 사회의, 성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새로운 성매매 청소년 정책에 대한 희망과 우려

성매매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최근에 성매매 청소년문제에 대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것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청소년 성매매 방지 대책 정책 기획, 2000. 4.12)

성매매 청소년문제의 기본 추진 방향은 크게 예방대책, 단속대책, 재활대책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예방대책으로는 상담 및 성교육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청소년 놀이문화·공간확대, 신가정 교육운동 등이다. 단속대책으로는 민·관 합동 성매매 행위 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정비 실적 평가이다. 재활대책은 보호시설의 내실화 및 재정비, 의료서비스의 확대, 취업기회 확대

등 사후관리이다. 구체적으로 2005년까지 청소년 상담실을 '99년 현재 89개에서 230개소로 늘리고 사이버 상담을 활성화하고 여성복지 상담 요원의 전문성을 높여 134개소에 39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에는 전문상담 교사 양성하여 2000년에는 3000명 배치할 예정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성교육에 대해 홍보하고 쉼터, 디딤터, 새삶터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성교육을 강화하고 「신가정교육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건립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지원을 확대하여 99년에는 월 21만 7천에서 2000년에는 월 25만 3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속대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청소년은 형사처벌 하는 대신 귀가조치, 사회봉사명령, 선도보호조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성매수 관련자 및 업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협조체계인 「지역별청소년대책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고용 및 퇴·변태 영업신고에 대한 보상금 확대실시 등으로 시민신고제의 활성화 등 민간 참여의 촉진을 꾀하려고 한다.

재활 대책으로는 보호시설을 쉼터(일시보호시설), 디딤터(선도보호시설), 새삶터(그룹홈)로 유형화하여 설치하고 내실화를 기하려고 한다. 일시보호시설로서의 쉼터는 가출청소년 및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 단기 및 긴급·위기 보호의 집으로 현재 6개에서 앞으로는 6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도보호시설은 원조교제, 성매매 청소년 중 정서적 문제가 비교적 덜 심각하여 집단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집으로 전문화된

직업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새삶터는 정서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소규모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보호의 집으로 장기체류가 필요한 청소년을 입소시켜 취업 전까지 장기 보호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안학교나 사설학원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또한 모든 보호시설의 운영지원을 강화하고 입소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한다. 현재 34개에 달하는 미인가 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존 선도보호시설의 운영비를 확대지원 할 예정이다. 입소절차도 간단하게 하고 법적 보호기간도 6-12월에서 2-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도 입소 청소년의 정서안정을 위한 생활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강화, 청소년 유형별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하려고 하고 중·고교 중퇴자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약물치료,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재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취업을 알선하고 시설퇴소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금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자립터(자립지원시설)를 설치하여 자립 시까지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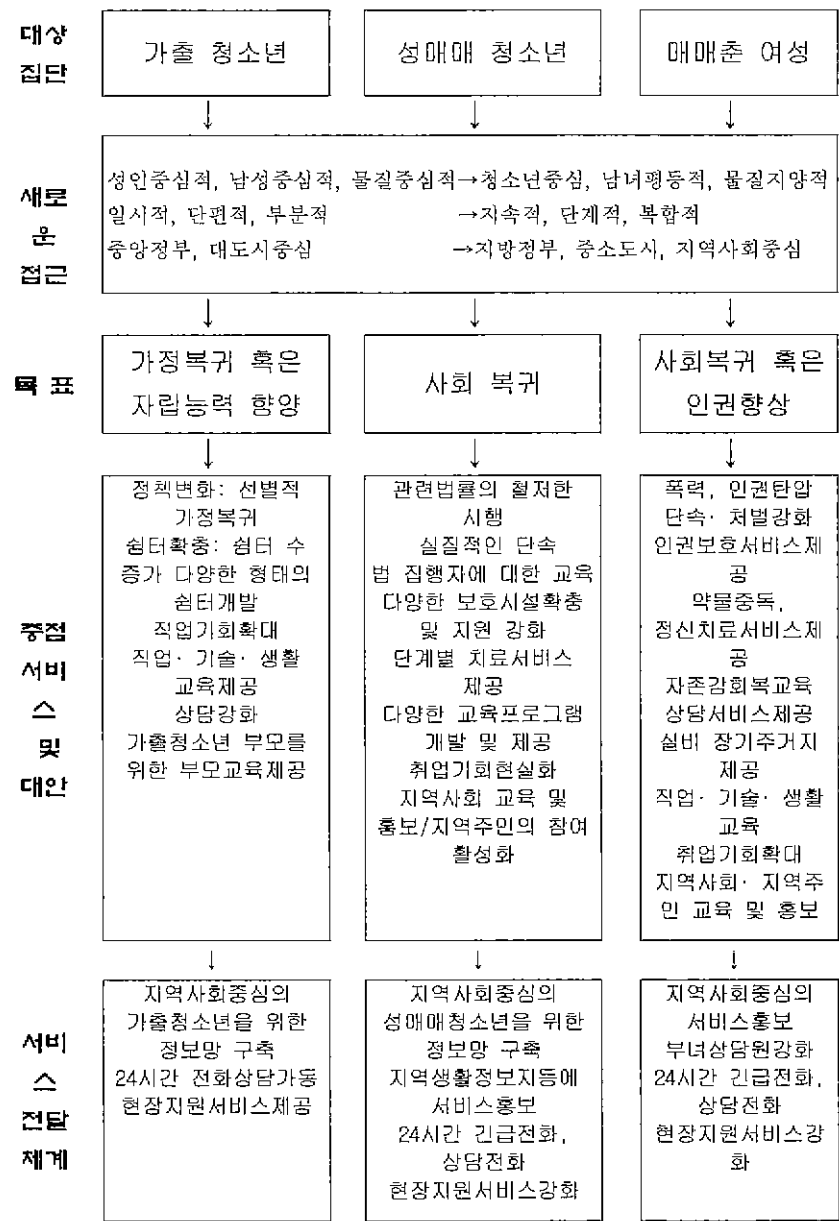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이나 성매매 청소년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성매매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위급함에서 나온 정책 추진 방향과 계획안이다. 기존의 대책 방안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나름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새롭게, 거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출 청소년 문제와 연결시켜 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 청소년문제를 매매춘 여성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계획안의 한계가 아닐까한다. 또한 현재 있는 10개의 선도보호시설도 예산이 없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장기간의 체류를 요하는 새삶터와 같은 보호시설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청소년관련 행정이 분산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보다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최소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되고 거시적이면서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일단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새로운 접근에 토대한 성매매 청소년문제 해결 방안 모델

이상의 성매매 청소년문제 대책에 기초하여 성매매 청소년문제 해결 방안 모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성매매 청소년문제해결 방안모델

IV. 결 론

IV. 결론

지금까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성매매 청소년 문제의 근본원인이 청소년에게 있기보다는 사회에게 그리고 성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들 청소년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을 묻기 전에 왜 이들이 성매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혹은 어떻게 성매매 산업으로 내몰렸는지에 대해 냉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을 탓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은 우선 사회의 그리고 성인의 보호를 받을 대상이라는 점이 좀 더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그런 시각에서 성매매 청소년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성매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으로부터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구속과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업주, 포주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 청소년 문제는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말들이 성매매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오고가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군산 매매춘 업소 화재 사건으로 죽은 임양은 죽을 때까지도 애타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도움

은 아무한테서도 오지 않았고 결국 임양은 불 속에 갇혀 죽고 말았다.

성매매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임양은 계속 나올 것이다. 성매매 청소년에게 필요한 많은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고 그것들이 실천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았다.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실천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단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사회가, 성인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일익 담당하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 강성순(1999). 원조교제: 17세 소녀의 충격적인 비밀 이야기. 마니.
- 고미리암(1999). 외국에 있는 매춘 여성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한소리회.
- 김성경(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9). 정부, 민간, 외국의 매춘 여성 지원시스템과 사회복지 귀 프로그램 고찰,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김은실외(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 김희자(2000). 10대 매매춘의 유입, 생활, 탈매춘의 가능성,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보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대검찰청(1999).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
-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1996). 가출청소년을 위한 치료적 보호센터(Residential Treatment Facility)로서의 청소년쉼터 사례연구.
- 박병식(2000). 10대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제 7차 IMF 시대 향락산업으로 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 토론회 자료집.
- 박정은 외(1993). 윤락여성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종성(1994). 한국의 매춘. 인간 사랑.
- 변화순(2000). 10대 매매춘 청소년의 다각적인 사후지원방안, 제

7차 IMF 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자료집.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새정치국민회 정책위원회(1999). 청소년성매매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심영희외(1999) 유해업소 고용 여자 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원미혜(1999).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원미혜(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유태희(1999). 사례를 통한 매춘여성 지원 방안 모색, 매매춘 워크숍 자료집.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이민희(1998). 가출 청소년쉼터 운영모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2000).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2: 10대 청소년 원조교제의 실태,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보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전경숙(1999).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한국청소년개발원.

정책기획(2000). 청소년 성매매 방지 대책.

조계창(2000). 율락가화재 사호로 숨진 20세 율락녀가 남긴 1400일 '슬픈 일기장' 전격공개, 우먼센스 11월호.

조성연(2000).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1: 원조교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보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조현순(2000). 선도보호시설 및 쉼터 현황 및 개선, 제안점, 제 7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 부터 딸·아들 지키기 토론회.

청소년 상담소·쉼자리 전국 협의회(1998).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가출·윤락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소·쉼자리 전국 협의회 창립대회 심포지엄.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10대 매매춘 청소년의 다각적인 사후지원 방안, 제 7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 토론회 자료집.

_____ (200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 자료집.

_____ (1998). 외국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제 1권, 제 2권.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96).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0), 복지사회 2000 봄 창간호.

한국성폭력상담소(1999). 십대의 성산업유입과 남성 성문화, 제 6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 토론회 자료집.

Kenji Oikawa(1999). "Before You Accuse Me..." Time International. May 3, 1999.

〈인터넷 자료, 비디오, 신문〉

성매매 관련 신문기사 다수 참조.

원조교제. www.supporters.or.kr/원조교제.htm.

어느 중학생의 원조교제 체험기. <http://aseo.pe.kr>.

원조교제(새로운 룰의 매춘게임). www.jls.co.kr

선도보호시설운영. www.mohw.go.kr

초등학생까지 원조교제의 희생물, 남자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역
원조교제도 판친다. <http://woman.joongang.co.kr> (여
성중앙, 2000년 2월호)

그것이 알고 싶다. “여성의 인권.” SBS. 2000년 11월 4일.

그것이 알고 싶다. “10대 매매춘 그 이후.” SBS. 2000년 3월 25일.

2580. “히파리의 기지춘 여성. MBC. 2000년 4월 3일.

PD 수첩. “미아리 이후의 매매춘 실태.” 2000년 2월 9일.

여성화재 토요일에 만납시다. “원조교제.” KBS 2000년 3월 18일